

# 아베,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인도네시아 한인 경제 파장은?

일본 정부는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의 포문을 열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들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되어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책임자인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7일 공포한다고 예고하고 있어, 오는 28일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된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핵심 전략 수출 분야의 제품을 통제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을 치닫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12시(인도네시아 시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작된 대 일본 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대응

- 인니 주요신문 ‘일본의 무모한 결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 우려

명백한 무역 보복”,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며 “국제 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인도네시아 Jakarta Post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경제 전쟁의 선포(Declaration of economic war)’라고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JAVAFX뉴스는 ‘한일 무역 전쟁 시작, 일본이 공식적으로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라는 제목에서 인접한 두 나라 간의 무역 관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CNN INDONESIA는 “문재인 대통령은 생중계 담화문에서 일본 각료 회의가 세계적인 공급망을 손상시키고 세

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결정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들을 철회하고 대화의 길을 걸어야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호하게 경고했다”고 문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JakartPost는 ‘문대통령, 일본의 무모한 무역 결정 비난’이라는 제호에서 “일본의 이기적인 행동은 세계적인 공급망을 붕괴 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문대통령의 담화내용을 전했다. 또한 “가해자 일본이 이 시점에서 상처를 다시 입히려한다면, 국제 규범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CNN은 홈페이지 톱기사로 일본 정부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에 포

함돼 있던 한국을 제외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하며,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수출 통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이슈로 비등점에 달한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일본이 지난 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더 엄격한 조치에 나섰으며, 한국은 이를 무역 보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두 이웃 국가 간 무역 긴장이 안보협력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시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헨리 패럴과 조지타운대학 교수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1일(현지시간) 워

<속보>

## 순다해협에서 7.4 강진발생... 쓰나미 조기경보

서부자와 반뜰주 순다해협에서 8월2일(금) 오후 7시 3분께 규모 7.4 강진이 발생하자 지질기후기상청 BMKG는 쓰나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국가재난관리청은 반뜰주민에게 고지대로 대피경보를 발령하면서 Banten, Lampung, Jawa Barat, Bengkulu 지역 쓰나미 가능성을 경보했다. 오늘 발생한 지진은 순다 해협 메가 지진대는 유라시아 및 인도-호주 판이 충돌하는 위치에서 발생했으며, 오랫동안 주요 지진과 쓰나미를 유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다해협 지역의 지진대는 최대 8.8 지진과 20m 이상의 쓰나미를 램뽕과 반뜰 연안에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진 전문가는 경고하고 있다. 강진이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TV방송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 조기경보 속보 방송을 하고 있다. 콤파스 신문은 해양수산부지진전문가를 인터뷰에서 반뜰 남쪽에 쓰나미 징후를 발견하고 모니터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진원지는 Banten주에서 남서쪽으로 약 147km 떨어진 해저 10km으로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중부 자와 솔로까지 진동을 느꼈다. 이날 지진으로 아파트에 사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주민들은 대피하느라 큰 소동이 발생했다. 또한 한인동포들도 지진에 놀라 집밖으로 나와서 한인포스트 밴드와 SNS로 피해 사항을 전달하면서 지진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거래를 무기화했다(Japan has weaponized its trad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는 안보 불안에 따른 수출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과 동포사회 대응책 시급**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인도네시아 내의 한인 기업과 동포들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일본 간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맞은 이번 사태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인 경제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봉제, 신발, 전자의 OEM(주문자생산방식)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기업인들은 이번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속앓이를 하며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일본 기업에 납품하는 전기 및 자동차 관련 분야, 에너지, 유통 분야 등 일본과 합작사에 한인 기업들도 거래선의 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혹시 불똥이 튀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부분의 한인동포들은 아베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명단 제외가 한일간 감정적 경제 전쟁으로 확산되어, 쉽게 매듭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동포사회에 미칠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 2019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농식품 수입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자문서비스 및 수입식품등록 관련 업무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2. 신청기간 : 2019.11.30 까지 상시 접수
3. 신청방법 : aT 자카르타지사 접수(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4. 지원기준 :

지원사업	자문	포장 패키지	바이어특화		
			컨설팅	등록비	검사비
지원비율	전액지원	농식품 90% 지원(수산식품 80%)			

- \* 자문지원 : 업체별 연간 최대 20건
- \* 포장패키지 : 업체별 연간 최대 2억 루피아
- \* 바이어특화 : 업체별 연간 최대 2억 루피아

### 5.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현지 자문	법률자문	· 현지법인 설립 관련
	통관·검역	· 현지 통관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 현지 검역 관련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 서류준비(위생허가증 등) 및 작성 검토
	기타	· 식약청(BPOM) 등록 절차 등록진행 절차, 성분 사전확인, 구비서류 등
포장 패키지	디자인비용	· 한국/인도네시아 업체 연계 포장패키지 디자인비용
바이어 특화	컨설팅	· MUI 할랄 진행 절차, 할랄 재료 목록, 설비 조건 등
	식약청 수입식품 등록제도	· 등록비
	검사비	· 수입식품등록(갱신)비 · 수입식품등록 관련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

- \* 현지자문은 여건 상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 불가
- \* 바이어특화사업 지원조건은 2019.11.30.까지 완료된 식약청 수입식품등록 건에 한함
- \* 식약청 수입식품등록제도 : ML(Makanan Luar, 수입식품), TI(Obat Tradisional Impor, 전통의약품), SI(Suplemen Impor, 건강보조식품)

6. 문의 및 접수처 : jakarta@at.or.kr



## 8월 8일, 아세안 창립 기념일

8월 8일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ASEAN)의 창립기념일이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에 태국 방콕에서 창립을 선언하였다.

아세안 창립 현장 서명은 인도네시아는 아담말릭 (Adam Malik) 외무부장관, 말레이시아는 툰 압둘 라자 (Tun Abdul Razak) 외무부장관, 필리핀은 나르시스코 라모스(Narsisco Ramos) 외무부장관, 싱가포르의 에스 라자랏남(S. Rajaratnam) 외무부장관, 태국은 타랏코만 (Thanat Koman) 외무부장관에 의해 서명되었다. 아세안은 경제 성장, 사회 진보, 문화 발전을 증진시키고, 지역에서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증진하며, 회원국간의 평화적 차이점을 논의할 기회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당시 아세안 회원국은 5개국였지만 1984년 7월 7일 브루나이, 1995년 7월 28일 베트남, 1997년 7월 23일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4월 30일 캄보디아가 아세안에 가입해 아세안의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아세안은 지구상의 총 면적의 3%에 해당하는 446만 km<sup>2</sup>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인구는 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8.8%에 해당한다. 아세안 해역의 면적은 육지 면적의 3배다. 아세안은 단일 주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영국, 또는 이탈리아에 이어 9번째로 큰 경제공동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아세안 창립 10여년이 지난 1976.2월애야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사무국을 설치(1976.2월) 하는 등 느리게 발전해 오다가, 90년대 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창설(1994.7월), 아세안+3 체제 출범(1997.12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월) 출범(2005.12월) 등 확대되었다.

아세안 국가 간의 비자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9개국의 시민들에게 30일간 무비자로 방문 허락을 주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국민은 무비자로 브루나이와 미



얀마 방문은 14일 가능하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캄보디아는 브루나이, 미얀마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 \* 아세안 개관

명칭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 출범 및 진전

60년대 중반 베트남전 본격화, 중국의 문화대혁명,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주의 확산 등 지역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67.8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이 아세안 창설. 브루나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1984.1월) 후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고, 지역주의가 고조되면서 베트남(1995.7월), 라오스·미얀마(1997.7월), 캄보디아(1999.4월)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현재의 10개국 연합 체제 완성

### \* 확대 및 제도화

2008년 아세안헌장이 발효되고, 운영 방식이 확정되는 등 제도화 완성.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로 순환하며, 금년도 의장국은 싱가포르(2019년 태국) 아세안 10개 국가가 10개 대화상대국과 1대 1로 매칭되어, 3년간 대화조정국 역할 수임(브루나이가 2018년 중반부터 3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중) ※ 10개 대화상대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

도, 미국, 러시아, EU, 캐나다

### [아세안 확대회의체]

#### 1. 아세안+3

아시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동남아(ASEAN)-동북아(한중일)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7년 출범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협력체로 평가. ※ 매년 아세안(금년 의장국 : 태국)과 +3(한·중·일 3국 의장국 : 중국) 의장국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의제 및 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 조율

#### 2. 동아시아정상회의(EAS)

2005년 출범 이래 역내 전략·정치·경제 이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상 주도 전략 포럼 (leaders-led premier forum)으로 설립. 7개 협력 분야(환경/에너지, 교육, 금융, 재난관리, 보건, 해양협력, 아세안 연계성)에서의 기능 협력도 이루어지는 이원적 성격으로 발전

#### 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 지역의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역내국가간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 ARF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분쟁의 사전방지 등 예방외교의 틀 형성에 기여. ※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중인 역내 안보 협력체



던 한국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과 상생번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 조코위 2기 정부에 바란다(1)

# 인도네시아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

인도네시아 노동 인력 부처에서 인도네시아 교육 기관을 이수/졸업한 외국인에 한하여 특별 취업 법령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도네시아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학생비자의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술 연구 고등 교육부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는 약 7,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인도네시아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는 기술 연구 고등 교육부가 목표로 삼은 외국인 유학생 수치인 10만명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4년동안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수학한 인도네시아 전문가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과 연계해서 일해야 하지만 취업비자 제한 규정 때문에 되돌아가고 있다.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 대학에 유학생이 줄고 있는 큰 이유다.

10만 유학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당국은 다시한번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이민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비자 취득 혹은 취업비자 취득을 하여야만 인도네시아에 거주할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생비자는 소멸되고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취업비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I (Per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이면서,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혹은 5년 이상의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네시아에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기에 해당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자국에서 근무 경험을 쌓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4년을 수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최고 전문가로 자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적게 찾아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과 교류의 기회가 적고, 결국 인도네시아 대학생의 인적 능력 개발과 향상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공부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이 축소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문화와 경제를 이해한 외국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인니 정부와 유학생 모두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

국가별 인도네시아 외국인 유학생		
순서	국가명	인원
1	Timor Leste	2,107
2	Malaysia	1,217
3	Thailand	659
4	Korea Selatan	524
5	China	456
6	Jepang	217
7	Jerman	156
8	Belanda	139
9	Perancis	136
10	Australia	139
합 계		5,750
2017년 기술 연구 고등 교육부 자료 참고		

도록 나이제한과 경력 제한을 삭제해서 인도네시아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고급 인력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유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 젊은이들이 앞으로 자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더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인도네시아 노동 인력 부처에서 인도네시아 교육 기관을 이수/졸업한 외국인에 한하여 특별 취업 법령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

## <외국인 취업제한규정>Syarat TKA Bisa Bekerja di Indonesia

Dalam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I (Per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1. Setiap TKA wajib memiliki pendidikan yang sesuai dengan syarat jabatan yang akan diduduki oleh TKA.
2. TKA memiliki sertifikat kompetensi atau memiliki pengalaman kerja paling sedikit 5 (lima) tahun yang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akan diduduki TKA.
3. Mengalihkan keahliannya kepada Tenaga Kerja Pendamping
4. Memiliki Nomor Pokok Wajib Pajak bagi TKA yang sudah bekerja lebih dari 6 (enam) bulan
5. Memiliki Itas untuk bekerja yang diterbitkan oleh instansi yang berwenang

## 국군 대 테러반 발족

인도네시아 군은 테러리스트를 차단하기 위해 7월 30일 코파수 수 Koopassus를 발족했다.

특별 대테러반 발족식은 동부 자카르타 찰랑잡에 자리잡은 국군본부에서 하디 짜흐얀토(Hadi Tjahjanto) 3군 사령관에 의해 선언되었다.

하디 짜흐얀토 3군사령관은 특별 대테러반 발족을 선언하면서 로하디 (Rochadi) 준장을 특별 반테러대의 첫 사령관으로서 임명했다.

경찰청 Dedi Prasetyo 공보부장은 “국군이 발족한 반 테러대는 경찰 대 테러반 Densus 88의 테러리스트와 함께 테러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디 짜흐얀토 3군 사령관은 축하사에서 “국군의 특별 대 테러반은 국내 테러 리스트 공격을 저항하고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재외동포를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이슬람국가 ISIS 추종자들, 무자히딘, 제마 이슬라미야, 갈라파인 이슬람국가를 창설하려는 극단주의 강경 이슬람 단체를 대테러반은 주목하고 있다고 콤파스 신문이 7월 31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테러범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활동하자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과 경찰 그리고

국방부는 3개 대 테러반을 구성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 테러특수대 Densus 88와 행정부는 국가 대 테러방지청 BNPT 그리고 국방부는 육해공 작전 특수대 Koopsusgab를 운영해 테러에 적극 대처하게 된다. 국방부는 육해공 3군 대테러 특수부대 콤파스갑(Koopsusgab)를 재 가동한다고 발표했다.<사회부>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기업법무, 투자 & 비즈니스컨설팅, M&A, 송무, 개인법무. 부동산, 자원개발, 지식재산권, 파산관재.

Corporate, Investment & Business Consulting, M&A, Litigation, Arbitration, Private, Property, Natural Resources, IPR, Curator

yisngmin@gmail.com, yisngmin@centrin.net.id

Tel. (62-21)525-5959, 527-2422, Fax, (62-21)527-2423

MP. (62)816-1911245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대표변호사 이승민, YI SENG MIN, SH, MH

무료 법률상담, Free Legal Consul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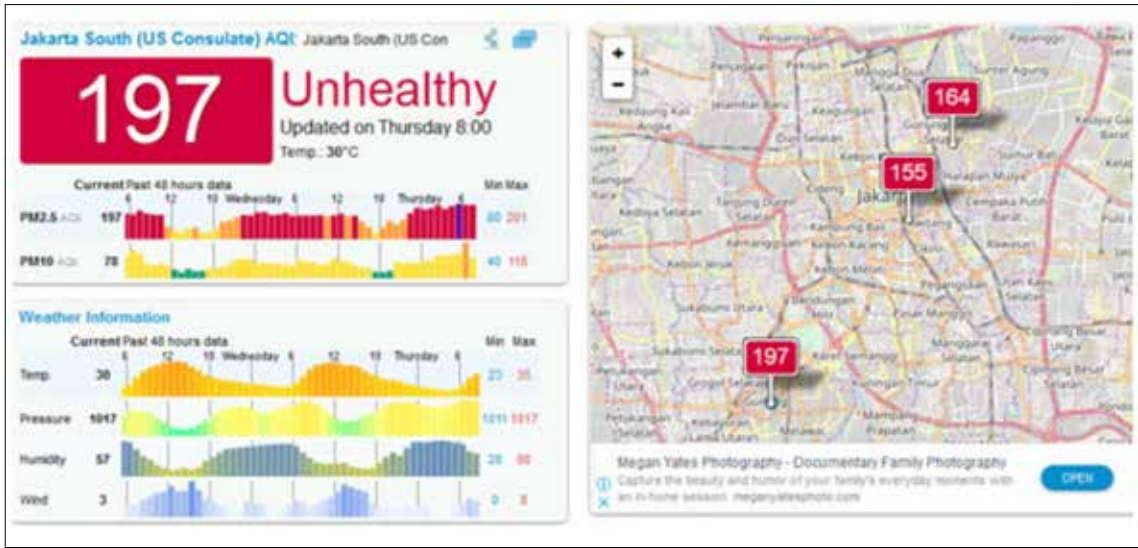
• 주일 :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Jl, Wijaya I No.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Tel. (021)720-5979, MP. 0816-1911-245

• 화요일 : 오후 2시 - 4시 [Jakarta 무역관] Wisma GKBI Suite 2102, Jalan Jenderal Sudirman No.28 Jakarta Pusat, Tel. (021) 574-1522



# 자카르타 시민단체, 대통령 장관 주지사 고발장 접수

호흡기환자 9,990만명 가운데 58.3%가 대기오염 질병  
매년 51조 2,000억 루피아 지불...  
자카르타 매월 20만명 호흡기 감염



<7월28일 AQI 자카르타 대기오염 지수 197로 나와 있다>

지난 7월 28일 06시04분 자카르타 대기오염지수가 197로 최고치를 기록하자 심각한 자카르타 대기오염에 참다못한 자카르타 시민과 단체들이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과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원고인단 수도방어조직팀(Tim Advokasi Gerakan Ibu Kota)은 지난 8월 1일 자카르타 대기오염과 관련해 중부 자카르타 법원에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한 산림환경부장관, 내부부장관, 보건부장관, 자카르타 주지사를 피고인으로 고발했다. 또한 수도방어조직팀은 서부자와주와 반뜰주에 있는 산업시설로 자카르타가 오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서부자와 주지사와 반뜰 주지사도 고발했다.

지난 6월 원고인단을 모집한 자카르타 법률지원협회(LBH

Jakarta)는 환경운동가와 시민 등 31명이 구성된 수도방어조직팀을 조직했다. 변호사 Nelson Simanjutak는 자카르타 주민들이 지원해 주기를 부탁했다고 Kompas 신문은 8월 1일자로 보도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는 "인도네시아의 대기오염 관련 규정은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대기 오염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카르타의 미세먼지(PM2.5) 수준이 34.5㎍/㎥에 이를 수 있다. 이는 특히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은 10㎍/㎥다.

**\* 자카르타 대기 건강 해롭다**

8월 1일자 콤포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는 건강에

해로운 대기오염 연무에 쌓여있다고 전했다. 대기질 오염조사 AirVisual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기질 오염지수가 평균으로 15975 수치다. 6월 12일에는 자카르타 대기질 지수가 163, 25일에는 175 수치, 7월 28일 06시04분에는 19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도시가운데 최악의 대기질 오염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AQI의 값 범위는 0에서 500 사이이다. 이 값이 클수록 지역의 대기 오염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0 - 5는 좋은 공기를 의미하고 51-100 은 보통 의미하고 101-150은 민감한 사람에게 건강하지 못하며 151-200은 건강에 해롭다. 201-203은 매우 건강하지 못하며



<2019년 8월 2일 09시 56분 자카르타 시내가 짙은 매연에 잠겨 있다>

301 - 500 이상은 최고 위험상태이다.

자카르타는 AQI에서 195 수치는 건강에 해로운 공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염공기에 민감한 상황에는 골프나 야외 활동을 줄이도록 권장한다. 모두가 오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때 실내환기는 권장하지 않고, 공기가 좋지 않으면 공기 청정기를 사용해야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납취발유 방어협회 (KPBB-Komite Penghapusan Bensin

Bertimbal)에 따르면 오염물질 47%는 차량에서, 22%는 산업에서, 나머지 31%는 레스토랑, 쓰레기 연기 등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자카르타 환경국도 대기오염은 75%는 육상교통 차량에서, 9%는 산업에서, 나머지 16%는 쓰레기 연소와 레스토랑, 가정 요리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납취발유 방어협회 (KPBB)는 2016년 호흡기 질병환자 9,990만 명 가운데 58.3%가 대기오염과 관련 질병으로 51조 2,000억 (51,2 triliun rupiah) 루피아를 지불했다고 전했다. 세계보

건기구에 따르면 지구촌 1/8 인구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했다. 2018년 건강조사 결과 천식에 걸린 환자 51.2%가 대기오염으로 발생되었고 자카르타에서 매월 20만 명 주민이 호흡기 감염(ISPA)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KPBB는 자동차없는 날에도 더러운 공기 때문에 거리에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자카르타 주정부는 환경 보호 및 관리법 제112조의 지역 사회에 조기 경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사회부>

## \* 에어비주얼(AirVisual)



최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AirVisual)은 전 세계에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나라와 도시를 조사하고 있다. AirVisual은 40여 개 국가와 6,000여 개 도시의 환경 오염 물질의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

이트로 지역별 공기오염도를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AQI는 한 지역의 대기 질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AQI는 미세먼지 PM 2.5, 부유먼지 PM 10, 일산화탄소, 황산, 이산화질소 및 지면 오존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오염 물질 유형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PM(Particulate Matter) 2.5는 직경 400분의 1mm이하의 먼지입자로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가 가장 작고 위험한 물질 중 하나다. PM 1은 초미세 먼지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맛이 보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TOBAK**  
KOREAN RESTAURANT

# 토박

• 새로운 메뉴 •  
• 콩나물삼겹살  
• 녹차고등어김치조림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Selatan  
예약전화  
Tel : 725-1135, 7278-0055, 7280-0753  
Fax: 720-3642 HP.0858-1412-5338

##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edung Perkantoran Pulomas Satu, GD.3 LT.3 R.10  
JL. Jend. A. Yani No.2, Jakarta Timur  
TEL. 021-475 4547,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 인도네시아 Top 가수 ‘시티(Siti Badriah)’ 결혼

인도네시아 최고의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티(Siti Badriah)가 7월 27일(토) 보고르 리첸시(Bogor Regency)에서 배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Krisjiana Baharudin)와 결혼했다. 가수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출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재 다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

는 시티 가수는, 2018년 발표한 ‘Lagi Syantik’으로 Youtube Billboard 차트에서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티가 2018년 발표한 ‘Lagi Syantik’은 2019년 7월말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 수 5억2천만 뷰(view)를 기록하며 인도네시아 대중 음악에서 신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 건기 가뭄에 산림 화재 늘어나

인도네시아 가뭄으로 여러 지역 숲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환경부가 7월 3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를 당한 숲지대는 모두 42,740.42헥타르이다. 숲지대 지역은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 술라웨시섬, 자와섬”

이라고 전했다. 수마트라 섬의 리아우 지역에서 27,683헥타르, 동부 칼리만탄 주에서 5,153헥타르, 리아우군도(Kepulauan Riau) 주에서 4,969헥타르, 서부 칼리만탄 주에서 2,273헥타르, 북부 칼리만탄 주에

서 792헥타르, 남부 술라웨시 주에서 441헥타르, 남부 수마트라 주에서 236헥타르, 동부 자와주 알주노 산지의 숲 40헥타르가 화재를 당했다.

## 민주주의 지수 소폭 증가

### 사회갈등이 민족 통일 위협

인도네시아 민족 통일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학기관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은 7

월 29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과 학기관은 “2018년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지수가 72.38점으로 지난해 72.11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

다. 그러나 사회 마찰이 있어 인도네시아 민족 통일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또한 갈등으로 인해 시민 자유와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콤포스 신문이 7월 31일 보도했다.

## 정보통신 법과 언론 자유

### 교장 성희롱 녹음 유포...교사에게 징역형

인도네시아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UU ITE 때문에 언론자유가 없게 되었다고 콤포스 신문은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정부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불평해왔다. 하지만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UU ITE 때문에 경찰에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최근 바익누를이라는 교사는

조코위 대통령의 사면으로 징역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바익누를 교사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하고 사면을 받았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바익누를 교사는 지난 2012년에 서부 누사뎡가라주 마따람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다. 이에 바익누를 교사는 교장의 성희롱을 녹음해 소셜미디어에 유포

한 혐의로 고발당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바익누를 교사에게 6개월 징역형과 5억 루피아의 벌금형 (hukum denda 500 juta rupiah)을 판결해 국민 공분을 샀다. 이에 UU ITE가 언론자유를 방해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콤포스 신문은 지난 7월 30일 보도했다.

<사회부>

### 신농씨 한방병원 건강칼럼

## 냉방기와 편도선염

항상 더운 날씨의 인도네시아는 실내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와 함께 제습기, 선풍기를 상시로 가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냉방기의 사용은 건기가 되어서 안 그래도 건조한 공기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게 됩니다.

다만 이런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면 편도선염이나 인후염,

기타 비염 증상 등이 심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편도선염은 더운 날씨의 과도한 냉방기기의 가동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4도, 5도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면역 세포를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편도선염은 침을 삼킬 때 목이 따끔거리는 정도지만 편도가 심하게 부으면 음식을 삼키기 곤란하고 호흡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39~40도 정도까지 열이 오르고 몸이 춥고 떨리며 머리로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면서 귀의 통증을 동반합니다.

또한 전신 피로감과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입 안의 혀바닥에 흰색이나 회색, 황갈색 이끼 모양의 물집이 끼어 있고 편도선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편도선염이 반복돼 만성이 되면 목에 뭔가 걸려있는 듯한 이물감과 함께 가래를 뱉으면 악취가 나는 노랑고 점액 만한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른기침과 식욕 부진, 두근거림, 어깨 결림 등의 증상도 함께 찾아옵니다.

또한 후두염, 기관지염, 중이염, 비염, 축농증 등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세균성 심내막염, 류머티스 관절염, 신장염 등의 합병증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염증을 없애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계속 재발할 경우 편도절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편도선 치료 역시 자연의 섭리에 부합되도록 질병의 원인을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와 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폐에 이상이 생겨 편도선염이 발병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폐의 기능을 보해주고 맑게 해주는 데 중점을 두면 면역력이 강화돼 편도선염도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편도선이 폐 기능을 대변하기 때문에 폐 기능이 강화되면 편도 역시 튼튼해져 병원균이 쳐들어와도 편도선이 붓거나 열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선염을 예방하는 생활 요령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금연, 적당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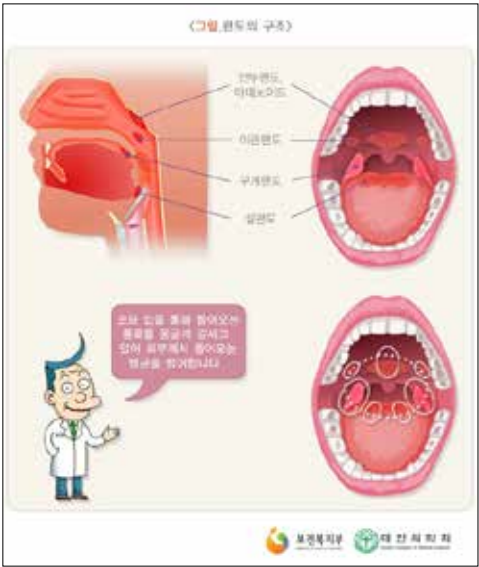
감초와 결명자, 도라지 달인물로 목을 행궈내면 편도의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고, 금귤을 달인 물이나 비파 나뭇잎, 우엉, 달래, 배즙도 좋습니다.

매실은 해열 및 살균,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실액을 물에 희석해 마시면 부은 목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면 염증이 생긴 목 주위에 열이 가해져 통증이 줄어는데, 이때 차가 목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천천히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자극적이지 않은 유동식이 좋고, 계란과 우유, 미역국, 푸딩 등 부드러운 음식은 목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커피와 초콜릿, 자극적인 조미료 등은 삼가야 합니다.



디지털 지갑 선택

LINKAJA, OVO, 또는 GO-PAY

여러 국영기업이 협력하여 지불, 또는 제품구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Link Aja, Go-Pay, Ovo라는 디지털 카드를 발행했다. 3가지 디지털 카드를 선택 가능하다

가게

2019년 6월 +150,000개

2019년 5월 +500,000개

2019년 3월 +300,000개

Link Aja!

OVO

GO-PAY

<div>충전 (top up)</div> <div><div>백화점, Telkomsel, ATM, Link Aja 협력회사</div><div>운전수, ATM, Shell 주유소, Cinemaxxx, 백화점, Ovo booth</div><div>운전수, ATM, 백화점, 전당포</div></div>	<div>최소 잔액</div> <div><div>• 200만 루피아 (OVO CLUB)</div><div>• 1,000만 루피아 (OVO Premier)</div><div>• 200만 루피아 (Ovo Club)</div><div>• 1,000만 루피아 (Ovo Premier)</div><div>• 200만 루피아 (업그레이드 전)</div><div>• 1,000만 루피아 (업그레이드 후)</div></div>	<div>현금인출</div> <div><div>백화점, Grapari, Telkomsel, ATM Link Bersama, Mitra Link Aja</div><div>계좌 송금, 가까운 ATM 인출</div><div>계좌에 송금, 가까운 ATM 인출</div></div>
<div>지불방법</div> <div><div>• 클릭 NFC</div><div>• QR Code 복사</div><div>• QR Code 복사, • 바코드 복사, • 휴대폰번호 입력</div></div>	<div>지불서비스</div> <div><div>항공기, 택시, MRT, 인터넷, 전기요금, 가스, 연료기름, 보험, 유료도로, 온라인게임, 운전면허증 (SIM), 경찰증명서(SKCK), 영화관</div><div>온라인 오젝, 온라인 택시, 휴대폰요금(Pulsa), 운전면허증 (SIM), 경찰증명서(SKCK), 보험, 영화관, 호텔</div><div>온라인 오젝, 온라인 택시, 항공기, 온라인게임파우처, 휴대폰요금(Pulsa), 운전면허증 (SIM), 경찰증명서(SKCK), 보험, 영화관입권, 호텔</div></div>	

한인포스트 디자인

신농씨한방병원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진료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장소(간다리아 부근)로 이전했습니다.

\*진료과목

급만성통증(요통, 전통, 두통, 무릎통증) 각종 내과질환(소화기, 호흡기 전문) 심장병, 중풍, 클리닉 소아성장, 수험생 클리닉 부인과 클리닉(갱년기 증후군, 생리불순, 불임) 면역강화 프로그램(찾은감기, 설사, 만성피로)

Pondok Indah

Jl. Sultan Iskandar Muda

Gandaria City

Park 1

Jl. Gandaria I

Simprug Indah

Simprug Terasse

Botanica

Simprug Terasse

평 일 - 9:30 ~ 6:00 (목요일은 12:00까지)

토요일 - 9:30 ~ 3:00

일요일 - 오후 1:00 ~ 5: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원장 최정(한의학 면허번호 12721)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석사

대한 한의학회 방제학회 회원

대한 한의학회 면역약침학회 회원

네이버 밴드에서 '신농씨 한방병원'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건강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Jl. Sultan Iskandar Muda No.60 (아리따움 치과 1층)

전화번호 : 021-725-1801 081-2224-1075(한방치료)





##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이하늘/GMIS 9학년

시대가 바뀌며, 세상은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좋은 변화들이 있는 만큼, 사회에 해가 되는 변화가 따르며 장단점들이 생기고 있다. 그 중 눈에 띄어 봐야 할 것은 바로 스마트폰 (smartphone)이다.

스마트폰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실, 우리는 더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정보 공유, 간편한 대화 시스템, SNS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기능도 발전하고 있으며 방송기능과 같은 유용한 기능들이 부여되고 있다.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스마트폰을 따가운 시선들로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 중독 (smartphone addiction)” 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의존,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한다.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사고에 휘말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협에 빠뜨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다 절벽에서 추락해 숨졌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중에 2명 이상은 그러다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실제로 있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437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2년



에는 848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통 길을 걸을 때 사람의 눈은 120도에서 15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는 시야각이 10도에서 20도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그 뜻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지 정확히 인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의 재미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사용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폭력적인 행동들을 보인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과 면대면으로 어울릴 시간을 줄여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스마트폰을 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장애, 과잉행동 등을 일으킨다. 간단히 하면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천천히 떼어놓는다는 것.

해마다 스마트폰 중독자의 수가 늘어나며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의지와 노력으로 상담 치료, 프로그램 참여, 생활 습관 바꾸는 것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의 증상이 보이면 빠른 치료와 관심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며 사용 시간을 정해두며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스마트폰을 얼마큼 유용하고 실속있게 사용하느냐, 자신에게 해가 되게 사용하느냐 다시 생각해보야 한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자카르타의 까끼리마

신지환/지스 12학년

우리가 살고있는 인도네시아는 제3세계에 속한 나라이긴 하지만 발전할 수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이다. 선진국처럼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옛날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고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많은 것 중에서도 한가지는 인도네시아의 음식을 들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음식의 향과 맛은 다른 나라에서 찾을수 없는 특이함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제국주의 침략의 원인이었다고도 이야기되고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향신료의 나라였으며 여러 섬들과 바다 그리고 375개의 도시에서 나오는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각각다른 요리 방식과 풍습으로 맛있고 특이한 요리가 많은 나라이다.

이미 나시고랭은 세계적인 요리가 되었으며 요즘 인도네시아의 인스턴트 라면인 mi goreng은 당당히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에서도 대형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음식들이 인도네시아 서민들에게 다가가 소비되고 있는것이 바로 길거리 음식이다. 자카르타에서도 거리에 여러가지 음식을 파는 모습을 많이 볼수있다. 우리의 리어카와 비슷한 바퀴가 달린 상점을 인도네



시아에서는 “Kaki Lima” 라고 불리며 싸고 맛있게 여러가지 인도네시아 음식들을 제공 한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은 이 음식을 쉽게 사게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블로그나 리뷰의 글을 통해보면 역시 부정적이며 인도네시아 시민들 외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는

1. 무더운 도시의 길거리에서 요리를 하다보니 재료들이 빨리 상하며 배탈을 일으킨다.
2. 접시와 포크 식기등을 깨끗히 씻지 않은 상태로 다시 사용하게 된다.
3. 음식 재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며, 정책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거리에서 이

정겨운 kaki lima가많이 사라지고 있다.

음식은 문화를 대표하고 나라간에 교류를 원활하게 할수있는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나라의 풍부한 향신료와 각종 재료들을 이용한 지역 음식을잘 개발하고 특히 즉석에서 만드는 튀김요리가 많은 인도네시아 음식의 경우 까끼리마처럼 이동이가능한 장점은 더욱 좋은 방법인듯 하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수 있도록 할 수 있을뿐더러 이나라를 나타내는 좋은관광상품이 될수도 있을것이다.

문제는 좀더 깨끗하게 시설을 정비하고 음식을 관리 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정부에서 제공한다면 싸고 맛있는 음식을 대중이 위생적인 환경에서함께 즐길수 있는 좋은 상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 염료는 안전한가

글. 김현아/ SIS KG 10학년

염료는 색소의 일종이며, 기름, 알코올에 녹아, 안료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염료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는 옷의 염색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용도 중에는 잉크, 가구, 식품, 화장품의 염색 등이 있다.

이렇듯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염료와 접촉한다. 하지만 모든 염료가 인체에 무해할까?

2010년, 워싱턴 DC의 ‘공익 과학 센터’(CSPI)는 FDA 허가를 받은 인공 식품 염료들이 발암성이 있을 확률이 높고, 정신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들을 일으킬 거고, 일부는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옷, 가죽 제품과 일부 식품을 염색하는데 사용되는 아조 염료 중 일부는 발암 물질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생성한다는 것이 검증되었



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는 벌써 문제의 염료들을 금지했지만, 이미 팔린 의류 물품들은 어쩌면 아직 회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19세기 초반의 부자들은 방사성 물질 라듐을 일부러 구매해 먹고 마셨다. 라듐이 불질을 생성한다는 것이 검증되었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삶 곁에도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우리는 그것들을 일부러 구매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유해성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 9월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글. 이영재/SIS BV 11학년

2020년부터 발급되는 모든 대한 민국의 여권의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뉴스에 이어 올해 9월부터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인 신분증인 운전면허증도 바뀐다고 한다. 이제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는 국민은 외국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은 한글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관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번역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이 유효기간과 8500원의 수수료, 인근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 제한된 장소들에서만 발급 가능 하는 등 외국에서 운전할 때를 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 한글 운전면허증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을 없애고 영문으로 된 개인정보와 EU의 운전면허증처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기재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기재사항

변경란은 1999년 기재사항 변경 의무 규정 폐지 이후 그 의미가 없어져서 그것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발급 즉시 캐나다, 영국, 터키, 뉴질랜드 등 30여 개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 정부는 미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등 37개의 국가들과 추가 협상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래도 교민들이 많이 가는 호주, 싱가포르가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필리핀과 동티모르 등이 추가 될수도 있어 교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 같다.

이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에 따라 2,500~10,000 원을 추가하면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출처=조선일보, 도로교통공단)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어느 나라에서 통할까		자료=도로교통공단
	즉시 통용되는 국가(30개국)	통용 예상되는 국가(37개국)
아시아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몰디브, 브루나이,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카자흐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피지, 동티모르, 마이크로네시아, 부탄, 투발루, 솔로몬제도, 국아일랜드, 타지키스탄, 키리바시, 투르크메니스탄
아메리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괌, 페루,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수리남, 비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루시아, 북마리아나제도연방,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플로리다 등 4개 주), 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바하마, 과테말라, 아이티, 엔티가바바다, 가이아나
유럽	영국, 아일랜드, 터키, 핀란드, 덴마크, 키프로스	독일, 핀란드, 헝가리, 스위스, 이탈리아, 러시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아프리카	키에니, 르완다, 라이베리아, 부룬디	나미비아, 레소토, 리비아
중동	오만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 동포청소년 701명 역사현장 탐방

제외동포재단 중·고생 모국연수  
17일부터 전국 11개 도시서 개최

‘2019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가 59개국(한국 포함) 1,076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701명과 국내 참가자 375명이 참가하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여수, 영천, 고양, 파주, 군산, 전주, 진안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그 동안

참가자가 적었던 재일동포 중·고생 67명이 참가한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차세대 청소년들의 비전과 네트워크 확보를 목적으로 역사현장 탐방과 모국의 도시·농어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재

외동포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캠프의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 국내외 청소년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모국연수는 동포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한민족 차세대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 POP 앨범 구입은 한인포스트 SHOP에서

- \* 가수 대형 포스터 택일
- \* 최저가 25만~35만/개당

연락처 : 021-45869198 카톡아이디 haninpost



## ‘2019 토라자 국제 페스티벌’ 보셨나요?

문화원, 한국 우수 예술공연 지원



올해 제7회째를 맞이한 토라자 국제 페스티벌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브라질 등 총 5개국이 참가해 문화·예술공연, 패션쇼, 푸드 페스티벌, 전통공예박람회, 합창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세계적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행사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원장 천영평)은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부 토라자시가 7월 19일(금) ~ 21일(일) 3일간 주최한 ‘2019 토라자국제 페스티벌’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전주기접놀이’ 공연을 지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의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주기접놀이(단장

백정신) 공연은 공연단장을 비롯한 12명의 공연자로 구성된 ‘전주기접놀이보전회’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수준 높은 한국전통우수공연을 19일과 21일 양일간 2차례의 공연을 선보였다.

약 2천여명의 관객들은 팽과리, 징, 장구, 북이 전하는 풍물놀이의 신명나는 리듬과 장단에 맞춰 휘날리는 화려한 깃발들이 어우러진 공연에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축제에 참가한 한 지역주민은 “무대구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국전통무대가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행사소감을 전했다.

천 문화원장은 “이번 행사 지원을 통해 주재국 내 문화소의 지역으로 찾아가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재국 내 지역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양방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 “한국문화원 개원 8년 됐어요!”

체육대회 성료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이 올해로 8주년을 맞았다. 한국문화원은 지난 7월 21일(일) 9시 스나얀 트레이드 센터(STC) 농구경기장에서 개원 8주년을 기념하여 주재국민과 한국동포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Run Together Korea-Indonesia!’를 주제로 한 이번 체육대회에는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한 500여 명 중 200명을 선착순 선발해 청·녹·적·황 4개 팀으로 나누어 현지인들에게는 다소 이색적이었던 경기들을 펼쳤다. 이날 코리아넷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기자들을 비롯해, 한류 파워블로거들이 참석하여 함께 뛰면서 취재하는 열정을 보여줬으며, 한국문화원에서 선발한 제1기 K-Kru 중 20명을 선발하여 이날 첫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천영평 문화원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문화원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며 “오늘 이 함성이 한국문화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하자 참가자들의 우레같은 박수가 터졌다.

이번 행사에는 2018 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종목 최초 금메달리스트인 테피아 로스마니아 선수(사진)와 국가원의 신승



중 사범이 특별 게스트로 참가하여, “태권도가 인연의 끈이 되어 한국에 대한 애착이 깊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테피아 선수와 ‘N-Lions’ 태권도 퍼포먼스팀을 선두로 몸풀기 운동을 시작으로 1부 경기의 서막을 올렸다. 1부에서는 치열한 점전 속에 빅 배드민턴 복식전, 미니볼링, 단체줄넘기 종목을 치열한 토너먼트전을 펼치는 내내 참가자들 각 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이어 2부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도네시아 태권도 N-Lions 팀이 허공 송파격과 등 화려한 태권도 기술을 선보이고 이어 방탄소년단 음악에 맞춰 태권도 동작을 접목한 흥겨운 퍼포먼스로 공연을 펼치자

참가자 전원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동작을 따라 하는 등 열광의 도가니였다.


한국문화원은 지난 2011년 7월 18일 개원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리아(27)씨는 “문화원의 오랜 회원으로써 다 함께 땀 흘리며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문화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원의 열혈팬이 되어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민간대사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천 문화원장은 폐회식에서 “한국문화원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하면서 “사고없이 오늘 이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 GLOBAL LOGISTICS PROVIDER

We provide the optimum solution and customized service with smart logistics system.



**KGL**  
Global Logistics Provider  
**PT. KGL Indonesia**  
The Prime Office Suite TWR LT7 Suite 7A  
Jl. Yos Sudarso Kav. 30, Sunter  
Jakarta utara, Indonesia 14350  
Tel. +62-21-2265-4188  
Email : korean@kglijkt.com  
http://www.kglnetwork.com

## 인도 덴탈 센터 전문치과병원

### INDO DENTAL CENTER





#### 치과의사 정혜정

-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 프리삭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쉐도잉
- 뉴욕대학교 치과대학 신경치료 연수

DRG. Jung Hye Jung(Helen Jung)

#### 예약전화 : 021-2751-3777



info@indodentalcenter.com  
Jalan Wolter Monginsidi No. 97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구 한강 레스토랑 옆, 하나은행 건너편)







# ‘2019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 인니 지역예선전 열기 ‘후끈’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공공외교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KBS가 공동주최하는 지구촌 최대 K-Pop 축제 ‘2019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을 7월 28일 센트럴파크 쇼핑몰 야외홀에서 개최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K-Pop 월드 페스티벌의 온라인 예선전에는 자카르타를 포함해 발릭파판, 말랑, 마카사르, 파푸아 등 총 25개 도시에서 314팀이 참가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댄스부문 13팀과 보컬부문 9팀으로 총 22

개팀(12개 도시)이 선발되어 일요일 자카르타의 밤을 열기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심사위원으로는 문화원장장 케이팝스타 시즌2에서 ‘천재 기타 소년’으로 유명세를 탄 가수 맥케이(Mackey), 그리고 한국 문화원 2019 K-Pop Academy 댄스부문 강사로 초빙된 현직 방탄소년단 ‘IDOL’ 활동과 다수의 유명 아이돌의 안무를 맡고 있는 박경열 안무가가 참여해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 본 행사는 김창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22개 예선 진출팀이 감미로운 목소리와 절도 있는 댄스퍼포먼스로 3시간여 진검승부를 펼치는 동안 관객들은 내내 열렬한 환호로 응원했다. 2019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의 보컬부문 우승은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열창한 보고르 출신의 헬비 아딧야(Shelby Aditya), 댄스부문은 세븐틴의 ‘숨이 차’를 커버한 자카르타 출신의 익스펙토(Expecto)팀이 각각 1등으로 영예를 안았다. 유난히 긴장감이 감돌던 심사위원단의 심



사평한 마디 한마디에 이어 우승자 발표를 하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이던 참가자와 관객들은 1등 우승자가 호명되자 예상했듯이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편, 경연대회를 마치고, 심사위원단들의 심사발표가 있기 전, 이미 현지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심사위원으로

나선 맥케이는 특별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는데, 모든 관객들이 떼창으로 화답하면서 축제의 열기를 더해갔다. 맥케이는 이번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에 출전한 팀들의 실력을 묻는 MC의 질문에 “실제 아이돌들의 공연을 보는 듯했다”고 감탄을 전하면서 “22개 팀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무대를 보여주어 우승자 선정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천영평 문화원장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진 K-Pop의 열기와 해마다 높아지는 참가팀의 실력을 통해 K-Pop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K-Pop 축제 참가자 모두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라면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최종 본선에 꼭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인도네시아를 빛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 우승자는 KBS 심사를 통해 10월 창원 KBS홀에서 열리는 최종 본선에 출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1) 심사위원 맥케이와 박경열 안무가 사진4) 댄스부문 우승을 수상한 ‘익스펙토(Expecto)’ 팀 모습 사진5) 보컬부문 우승을 수상한 헬비 아딧야(Shelby Aditya) 사진8) 헬라 메드니스(Hella Madness) 팀의 엑스디아이 커버댄스 모습

# 삼포르나 아카데미

##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명문그룹 학교재단  
유치원 초중고 시설 및 교육은 최고를 자랑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도자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교육 시스템  
이미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에 한국학생들이 재학중





### Jakarta Campus



☎ 0813 3000 3002  
sampoerna.academy.jakarta

### Medan Campus



☎ 0811 6363 331  
sampoerna.academy.medan

### BSD Campus



☎ 0811 9530 032  
sampoerna.academy.bsd

### Sentul Campus



☎ 0811 9530 031  
sampoerna.academy.sentul

### Surabaya Campus



☎ 0858 5917 6832  
sampoerna.academy.sby



Cambridge International School  
Diploma Programme

대학의 경우 영국 미국  
교환학생제도 가능  
삼포르나 그룹 취업 우선화 고려

<입학문의> "상시입학가능" 한국인 상담환영

TEL : 021)5022- 2234

e-mail : info@sampoernaacademy.sch.id

www.sampoernauniversity.ac.id



## 인도네시아, Tax 시스템 및 정책 大 변화

- 인재육성 및 연구개발에 200~300% 세금 인센티브 적용
- 새로운 조세 관리 시스템 구축, 2023년 완료 목표

정부는 올해 과세소득 계산과 소득세 환급을 위해 2019년 정부 규정(PP) 45호를 발표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발전을 증진시키는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특정 역량에 기초한 인재 육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슈퍼공제세 또는 200%의 감면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네슬레의 인도네시아 카라완 공장 증설의 시공식에 참석하여, "인센티브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금공제(Tax

Holiday), 세금 완화(조세특별조치) 그리고 기계 수입 관세 면제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제 개혁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Core Tax System'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조세 관리 시스템의 구축에는 총 2조 400억 루피아가 투자된다.

국세청은 올 10월 'Core Tax System' 구축을 위한 조달 담당을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0년 10월에 입찰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



히며,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과세 제도가 더 정교해질 것이며, 이는 국가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도입 이후에 개정될 세금 제도는 21가지이며, 세금 납부, 소득세 PPh 22, 23, 26은 통합되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등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 대비 세금 비율을 1~1.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1.5%에서 2020년에는 12.2%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직장은 앙카사푸라

## 아시아 직장 순위에 인도네시아 기업 34개 포함

지난 7월말, HR Asia는 아시아 각국에서 "최고의 직장(Best Companies to Work for in Asia 2019)"을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순위는 공항공리공단 ANGKASA PURA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종합사 ASATRA가 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4개 기업이 선

발되었으며, 이는 21개 기업이었던 2018년보다 13개가 증가하여 인도네시아 기업의 업무 환경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되었다. 새롭게 등재된 기업에는 Bukalapak, Coca Cola Amatil Indonesia, BCA, Payfazz 등이 있다.



## 올 상반기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싱가포르 총 34억 달러 투자로 일본, 중국 제치며 가장 큰 손으로...



지난 7월29일(화) 투자조정위원회(BKPM)가 발표한 최신 투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기록한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총 5,348개의 프로젝트에 총34억 달러를 투자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3,708개의 프로젝트에 2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은 1,518개의 프로젝트에 총 23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편 홍콩은 1,068개의 프로젝트에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4위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는 1,432개의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5위를 차지했다.

2019년 상반기의 총 투자 규모는 총 395.6조 루피아(미화 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가 증가했으며, FDI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212.8조 루피아, 국내 투자는 164% 증가한 182.8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www.rlcindonesia.com](http://www.rlcindonesia.com)

##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보세창고 20년의 역사, **RLC**가 한발 더 나아갑니다

### 무역 통합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창고 20년 역사의 RLC가 그 동안 축적된 운용 및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업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보세창고 업무는 물론 해외 및 국내외 물류, 산업 원부자재 구매 및 판매대행, 통관 등 각종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보세창고

무역대행

구매

통관·배송

재고관리

지사업무



[zimmoah.com](http://zimmoah.com)

인니 물류의 대명사  
**짐모아**가 함께 합니다!



**WE DELIVER**  
EVERYTHING, EVERYWHERE!

EXPERT IN TRANSPORTATION

업무통합



**ZIMMOAH**



**PT. RLC INDONESIA**

JL. Jababeka XVII B Block U20  
Kawasan Industri Jababeka, Bekasi 17530, Jawa Barat  
Tel : (62-21) 8911 1740 (Hunting) Fax : (62-21) 8911 1741  
E-mail : [rlc@rlc.co.id](mailto:rlc@rlc.co.id)

담당 : 부장 최기락  
MP : +(62) 816 182 0317  
E-mail : [krchoi@rlc.co.id](mailto:krchoi@rlc.co.id)



# 인도네시아 주간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신한은행인도네시아 제공

## 조코위 대통령, 퇴직금, 최저 임금 등 노동법 개혁 드라이브 걸다

Harjianto씨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공장중의 하나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운동화를 만드는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는 충분한 사람들을 채용하질 못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퇴직금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최저 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 체계 내에서 Harjianto씨는 그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 인력 고용에 나설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의 PT Adis Dimension Footwear와 같은 공장들은 생산물량의 2/3 정도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는데,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최대 수량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경쟁국가 Vietnam과의 경쟁도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급 체인을 변경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가 동남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공약했던 7%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오랜 기간 논쟁거리였으며, IMF에서도 자주 언급될 정도이며, 투자자들은 세계 은행이 집계하는 ‘사업하기 쉬운 국가 순위’ 랭킹에서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인도네시아에 게 낮은 평가를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계는 또한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확실성을 원하고 있음. 현재 지역 정부와 각 도시 행정부 별로 최저 임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도 다른 기준들을 두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파편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월 \$259 수준으로 베트남보다 50% 정도 많은 수준임.

Jusuf Kalla 부통령의 수석 자문관인 Sofjan Wanandi는 정부도 채용과 해고와 관련한 법을 더 유연하게 만들려고 하는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그의 여당 인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수석 자문관인 Sofjan Wanandi는 “우리는 더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여당이 의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인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의 많은 정책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습니다. 예산을 포함해서 말이죠.”라고 말하였다.

많은 노동 인력, 높은 빈곤 수준 및 수백만의 비정규 노동인력과 함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도 필수적인 일임. 실업률이 22년來 가장 낮은 수준인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3900만명, 전체 노동 인구의 30%가 충분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음. 주당 1~34시간 수준의 부분 근로 형

태로 일하고 있는 상황임. 7400만명은 비정규 부문에서 고용되어 있음.

노동 개혁은 과거에도 약속되어 왔지만 지금껏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이번에는 Kamdani는 믿음의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둔화, 무역전쟁 등으로 우리는 투자자의 지역 재편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혁을 잘 진행해서 세계 나머지 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이번 기회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국가개혁 위원회, 인적자원 개발 관련 핵심 도전과제

국가 개발 계획 위원회의 수장이자 국가개발계획 부서의 장관인 Bambang Brodjonegoro는 인도네시아의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음. 지난 월요일(22일) 2019년 인도네시아 개발 포럼 자리에서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현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인적자원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30개 국가들 중에 65등을 기록하여서 33위의 말레이시아, 40위의 태국, 50위의 필리핀, 64위의 베트남에 뒤져있음.

여러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낮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음. 장관은 제조업 부문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며 “여행, 창의경제, 디지털 경제 등 노동집약적 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양질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부문의이라고 그는 말하였음. 많은 사회적 약자 그룹들은 비정규직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정규직 부문에서 일할 기회를 잡기 어려움. 장관은 “인구 통계학적인 부담의 변동성과 빠른 기술 발전은 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고 말하였음.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인적 자원 개발은 전반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음. 유능하고 유연하며 창의/창조적인 인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초적인 서비스와 사회 보장을 마련해 주어야 함. 동등한 보건 서비스 부문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창의 개발 등의 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인도네시아의 생산 부문은 취업 기회를 늘리고 빈곤/실업 및 사회 격차 부문을 해소하는 것에 힘을 실어줄 것임. “투자 환경 분야에서의 구조 개혁을 통한 취업기회 창출을 바탕으로 창업자 정신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며 사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 국세청, 법적 확실성 강화를 위해 소득세 관련

## 규정 개정

국세청장은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세금 계산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국세청 대변인인 Hestu Yoga Saksama는 7월 3일 발표된 국세청령(Perdirjen) 제 2019-14호는 기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소득세의 징수와 관련한 국세청령 제2010-32호의 개정이라고 말하였음. 2010년 규정은 재무장관령 제 2009-208호의 파생 버전으로 제 2018-215호로 개정된 바 있다. 국세청 대변인인 Hestu Yoga Saksama는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재무장관령 제 2018-215호에 근거합니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옛 규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은행 납세자와 기타에 관한 소득세를 규정합니다.”라고 지난 일요일(21일) 발표하였다.

그는 재무장관령 제 2018-215호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가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다룬다고 말하였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은행 납세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금융감독청에 의해서 제시된 재무제표에 기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해당 규정은 공기업이나 지역공사 등 다른 납세들에 대한 세금 계산 체계도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의 개별 납세자들의 소득세 규모는 그들의 사업 순소득의 0.75%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음.

## 만다리 은행 고객 계좌에 전산 오류 발생

국영 Mandiri은행의 많은 고객들은 지난 토요일(20일) 아침에 ATM 사용 시도에서 거래에 실패한 것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많은 이들은 그들이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만다리 은행의 법인 비서관인 Rohan Hafas는 해당 장애가 ATM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그는 매일 자정에 은행은 일간 발생했던 거래들의 리포트를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만다리 은행의 법인 비서관은 “예를 들어, 당신이 100 루피아를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고 그날 10 루피아를 인출한다면, 당신의 계좌 시스템은 당신이 90 루피아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라고 해당 거래 기록은 은행 백업 데이터로 남는다고 얘기하였다.

지난 토요일(20일)에도 이러한 작업이 일어났지만,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다리 은행 전체 고객의 10% 수준인 150만 고객의 계좌에서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고 말하였음. 만다리 은행의 법인 비서관은 “해결 방안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시스템에서 계좌 정보를 조정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은행은 2,670명의 고객들의 계좌를 차단해 두었으며, 컴퓨터 시스템 오류 기간 동안에 원래 보유해야 할 잔고보다 더 많은 인출을 한 고객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막아두었다고 하였음.

Rohan은 지난 월요일(22일) 은행이 이러한 이슈를 발생시킨 계좌 소유주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음. 그는 만다리 은행이 과다 인출을 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음.

## 재무장관, 금리 인하로 하반기 투자 증진될 것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수행한 금리 인하와 앞으로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힌트가 정부의 투자 정책 개정과 어울리면서 하반기에는 투자 증가가 전망된다고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가 말하였다. “우리는 투자가 하반기에는 높아질 것으로 희망합니다.”라고 그녀는 지난 월요일(22일) 말하였음. 금리 인하와 안정된 환율,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국내 성장 부문의 높은 모멘텀이 투자 환경 개선을 불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장관은 정부가 최근에 연구개발 및 직무 연수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한 것을 포함하여 투자를 이끌기 위한 재무적인 인센티브들을 준 것이 투자를 이끌 것으로 보았음.

민간 투자 부문은 GDP에 기여도가 두 번째로 높은 부문으로 올해 1분기에는 전년대비 5.03% 성장하여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4% 성장에 비해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7월 18일에 있었던 월간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여서 2017년 9월 이후 첫 인하를 시행하였음.

Perry Warjiyo 총재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국내 성장을 증진할 필요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힌트를 주었음. “앞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한 필요로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완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 등을 바탕으로 말이죠”라고 그는 말하였음.

## 상반기 세수 증가 부진으로 정부 지출 축소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정부가 2019년 상반기에 세수 성장이 부진하여서 향후 몇달간은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입찰 방식을 늘릴 것이고 몇몇 프로젝트들은 실행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22일 kontan.co.id를 통하여 말하였다.

의회의 2019년 연방 재정 검토에서는 중앙 정부가 하반기에 정부 지출이 896.6조 루피아(641.9억 달러) 또는 연간 총 재정의 54.9%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하반기 지출 예측에서는 연간 전체 지출은 총 예산의 93.4%로 1,530조 루피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지난해에, 중앙 정부 지출 비중은 예산의 100.1%였음.

소위원회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은 올해 2124조 루피아로 올해 연간 정부 재정에서 잡아두었던 224.32조 루피아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지출 전망은 기초적인 거시경제 전망의 변화에 근거합니다. 연료 보조금의 현실화나 3kg LPG 통에 대한 보조금이나 비료 보조금, 에너지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소위원회의 Iskandar Syaichu가 말하였다.

Sri Mulyani는 하반기에 지출을 낮추는 것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은, 상반기에 Asian Game과 관련한 지출이 컸던 것과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에 따라 지출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만약 우리가 총 예정된 예산의 94~95% 정도를 지출한다면, 이것은 개선된 것일 겁니다.”라고 장관은 말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세수 증가 측면에서 603.34조 루피아(432.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5%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2019년 연간 정부 예산에서 잡아둔 9.5% 증가에 못 미친다고 얘기하였음. 2018년 상반기에 증가율은 14.3%를 기록하였었음.

## 인도네시아, UAE와 12개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경제적인 부문을 포함하여 12개 부문에서의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음. “논의된 핵심 내용은 첫째로 양국이 어떻게 경제 협력을 높일 수 있을 지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라고 인도네시아 외교부 Retno Marsudi가 지난 수요일(7/24)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말하였다.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따라 양국은 12개 분야 가운데 9개 분야에 대한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3개의 사업 대 사업 MoU에 합의하였으며, 그중에 하나는 원유 가스 회사 Pertamina와 ADNOC 사이의 상호간 전략적 이해 협정이었음. 2개의 다른 MoU는 Chandra Asri Petrochemical Erwin Ciputra의 대표이사과 석유 화학 투자회사 Mubadala Musabbeh Al Kaabi의 대표이사 간 협력, Maspion Alim Markus의 대표와 DP World Sultan bin Sulayem의 대표 간 협력이었음. 이 모든 협약들이 조코위 대통령과 아부다비 왕자 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다 합쳐 3개의 사업자 간 MoU의 가치는 136조 루피아(97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라고 Marsudi는 말하였다.

## 인도네시아, 온라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초안 마련

인도네시아는 해외 기업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수입에서 큰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고위 국세청 관료가 로이터에 말하였다.

국세청 관료인 John hutagaol은 어떤 방법이 이 영역에 대한 법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쟁들이 지속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매출세의 성격인 부가가치세가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하였음. “이것은 낮은 위치에 있는 열매(쉬운 과세 방안)로 모든 나라의 규정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국세청에서 국제 부분을 담당하는 Hutagaol이 말하였다.

그러나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현재의 규정은 전통적인 거래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매커니즘을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권은 현재 모든 재화/서비스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48억 루피아(345,000달러) 이하 규모의 매출사업자는 면제됨.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은 Hutagaol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 콘텐츠 제공자, 스타트업, 인터넷 기반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며, 해당 디지털세를 적용해 분석이 있는 일본과 호주와 사례를 통해 적용 방안을 찾고 있음. 그는 초안 마련 이후 실제 신규 법으로 적용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절하였음. 인도네시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많고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서비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

2016년에 인도네시아는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에 대해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하였으며, 그들의 광고에 대한 부가세 미납 등을 지적하였지만 당국은 상호 합의로 종결 지었음.

## [세무의 창]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 세무법인 다솔 임성균 회장

경제활동이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해외이주 국민이 2천200명으로 전년대비 2.7배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을 달리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적과 상관없이 없다. 거주자는 본인의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 비거주자가 국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기업인이 서울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려는데 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줄일 수 없느냐는 상담이 최근 있었다. 거주자라면 1가구1주택이란 양도소득세가 불고, 소유 10년 넘는 아파트라서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데 반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밖에 받지 못해 세금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 기업인은 한국에 상가 2개와 펀드 2건을 보유해 국내에 재산과 생활기반이 있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있고, 부동산 자산이 인도네시아에 더 많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사업가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 하여 거주자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재산·직업·가족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 - 상속세에도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차이가 있다

상속공제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대30억 원)를 받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 밖에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것이 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그러나 외국에 큰 재산이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사망할 경우 외국국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

속세가 과세 되므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외국소재 재산은 제외하고 한국 재산에 대해서만 국내에 상속세를 내게 된다.

미국의 경우 상속재산이 1천1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 재산이 더 많다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사망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된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해외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증여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5천만 원 증여공제를 받지 못한다.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도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로 아예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재산을 증여해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다. 다만 국외재산을 증여한다면 국내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주)동주금속, 수라바야서 선박기술 및 조선소 경영지도

‘KOTRA 글로벌 CSR 지원사업’  
기술·경영세미나 추진  
600만원 상당의 자동용접 주행장치 기부

한국의 조선소 운영기술 및 생산성 향상 노하우를 전수하는 행사가 수라바야에서 열렸다.

KOTRA 수라바야무역관(관장 김현아)은 지난 7월 25일~26일 양일간 수라바야에서 ‘KOTRA 글로벌 CSR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동주금속(대표: 손동주, 소재지: 경남 양산시, 주요사업: 용접기자재 등 제조, 조선경영컨설팅)과 함께 ‘선박생산자동화 기술 및 조선소 경영지도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KOTRA 글로벌 CSR 지원사업’은 현대중공업 등 현장근무경력자 풍부한 전문가를 세미나 연사로 초청,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소 운영기술 및 생산성 향상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인도네

시아 조선소들의 역량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CSR을 주도하는 우리 기업에는 현지 인지도 향상 및 잠재 구매처 확보 계기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다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유일의 조선특화 전문대학인 PPNS (Politeknik Perkapalan Negeri Surabaya, <http://ppns.ac.id>) 및 인도네시아 조선협회 IPERINDO (Ikatan Perusahaan Industri Kapal Dan Lepas Pantai Indonesia) 등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업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Improving Shipbuilding Productivity & Efficiency’라



는 타이틀로 진행된 1일차 세미나에는 국영조선소인 PT. PAL Indonesia (Persero), PT. Dok Dan Perkapalan Surabaya (Persero)를 비롯하여 동부 자바주 소재 조선소 및 연관 업종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또한 기부가치 600만원 상당의 자동용접 주행장치 2대 (2 GMAW Welding Machine, 2 GMAW Automatic Welding Carriage)를 (주)동주금속이 현지 조선특화전문대학 PPNS에 기부하는 기증식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PPNS는 (주)동주금속으로부

터 기증받은 용접기기를 자체 보유한 Welding Center에 비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일차에는 용접기기 기부처인 PPNS와 용접기술자 양성 전문학원인 Kampuh Welding Indonesia (<https://www.kampus-welding-indonesia.com>)를 각각 방문하여 용접교육 현장을 지도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주)동주금속 손동주 이사는 “그간 서너 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거쳐 현지 조선소들의 역량을 진단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도서 국가로서 내륙 운송수요를 기반으로 한 잠재력이 크나 아직은 기술력, 자본력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한국의 조선산업은 최근 불황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한국의 유류 전문인력을 통해 단순 기술 뿐 아

니라 영업, 수주, 생산선 향상방안 등 조선소 운영 전반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전달하여 양국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라바야무역관은 ‘KOTRA 글로벌 CSR 지원사업’ 행사를 통해 단기적으로 자동화 용접장비 보급을 통한 장비 수출 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산·학 협력고리를 만들어 기술교류를 수출하고 靑睞 기술인력 양성으로 보다 더 활발한 우리 조선기자재 진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선, 건설, 플랜트 등 전 산업에 소요되는 용접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유관기관과 함께 이를 보다 심도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 강구할 예정이라 전했다. <경제부>



## '현대건설 파트너' PTPP, 인니 고속도로 프로젝트 수주...낙수효과 기대

현대건설, 고속도로 프로젝트 협업으로 수혜 예상

‘현대건설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건설회사 ‘PTPP Tbk’가 현지에서 대형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수주, 현대건설로의 수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PTPP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토목건설 관련 업무제휴(MOU)를 체결, PTPP가 이번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

대건설에 협업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PTPP는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통제청(BPJT)이 발주한 세마랑-데막 유료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최근 수주했다. 국영건설사 PT 위자야 까르야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했으며 PTPP

지분은 25%다.

세마랑-데막 유료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총 27km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등 유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컨소시엄은 이 중 16.31km 구간을 책임진다.

PTPP의 이번 프로젝트 수주는 현대건설 입장에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현

대건설과 PTPP는 지난달 MOU를 체결하면서 토목 관련 사업에 양사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도로와 교량 등 토목사업과 항구, 광산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가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협업이나 일부 공사 위탁공사 등의 형태로 PTPP의 공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PT. HD FORKLIFT INDONESIA**  
Hyundai Official Agent

**HYUNDAI**  
MATERIAL HANDLING  
[www.hyundai-mh.com](http://www.hyundai-mh.com)

25.30  
**35B-7A**



## 현대 전동지게차 경제형 모델 출시 인도네시아 최초 리튬бат데리 판매시작

2톤, 2.5톤, 3톤, 3.5톤 Counter Balance (4휠 타입)

- ▶ Economic Price : 동급 경쟁사 대비 경쟁력있는 가격
- ▶ High Quality : 현대 기술력의 고품질
- ▶ Baru Service : 검증된 무상점검 순회서비스 since 2013
- ▶ 보증기간외 현대지게차 영구 사용시까지 매2개월 마다 무상점검서비스 제공



**PT. HD FORKLIFT INDONESIA**  
Marketing PIC : Ms. Ayu (0812 9597 2720)  
After Service PIC : Ms. Siti (0813-3307-7913)  
Korean Desk PIC : Mr. Park (0821-2534-3214)

Korea Style Service  
프로그램



매월 1회 무상정기점검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부품공급 48시간 이내 완료

무상보증기간 1년 또는 1,500시간  
납기지연, 부품지연시 무상렌탈  
구형지게차 매입서비스

Jl. Raya Kelapa Hibrida Tipe Olive A, Blok GOS No. F 06 Rukan Grand Orchard-Kelapa Gading. ☎ 021-2961-6497, (Mail) : [hyundaibagus@gmail.com](mailto:hyundaibagus@gmail.com)



한인포스트 특집연재  
인도네시아 라이프스타일(5)

- <연재>  
1. 인도네시아판 에어비앤비, 트라벨리오와 마미포스(507호)  
2.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회사 소개(508호)  
3. 차이나 엑소더스 본격화...인도네시아로?(509호)  
4.인도네시아 부동산만큼회사소개(510호)  
5. 인도네시아 소매업시장의 대 변화(512호)

2018년 아시아의 소매 유통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으며,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아시아는 글로벌 디지털 커머스 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변화는 도시화, 증가하는 1인 가구, 노령화 및 부의 증가 등 4대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은 아시아 지역의 유통 시장 변화와 시장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을 소개한 ‘2019 아시아 100대 유통기업(Top 100 Retailers in Asia 2019)’ 보고서를 7월 3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유통 시장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모델 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100대 유통기업에서 1위는 알리바바, 2위는 징둥닷컴, 한국기업 중에서는 롯데가 8위, 신세계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세븐&아이홀딩스(3위), 이온그룹(4위), 월마트(7위) 등 오프라인 매장 기반 유통기업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기업으로는 롯데가 8위, 신세계가 10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대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업인 쿠팡은 57위를 기록했다.

2023년 아시아 인터넷 소매 시장 규모 1조 6000억 달러로 예측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아시아 온라인 기업 대 소비자(B2C) 거래의 47%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10년 전인 2009년에 기록된 27%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라쿠텐과 같은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업들은 폭넓은 쇼핑 옵션을 제공하면서도 안전한 결제와 믿을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성장에 힘을 보탰다. 유로모니터는 2023년 아시아 지역 인터넷 소매 시장 규모를 2018년 시장 규모의 두 배 수준인 1조 6000억 달러로 보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이반 우즈노브(Ivan Uzunov) 리서치 매니저는 “식품이나 음료 등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던 제품을 이제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커머스 시장

의 성장은 도시 소비자에게 대량 구매(bulk purchases)에서 필요에 따른 구매(buy as you need)로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모니터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식음료 부문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을 꼽으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신선 식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와 이커머스에 대한 친숙함과 신뢰성이 맞물려 온라인 식품 유통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우즈노브 매니저는 “아시아 신흥 성장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식료품점이지만,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편의점 등 보다 현대적인 유통 채널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로모니터는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를 필두로 아시아 가구의 가져분 소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소매시장 회복 중...

현재 인도네시아의 소매시장은 과도기를 맞고 있으나, 정부는 결제 혹은 세금 신고 등을 위한 기술 활용을 빠르게 적용하여 국내 소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에 세금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후, 소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정부의 감시를 받을 우려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2018년, 소매업 성장률은 회복되었고, 예측 기간 동안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은 부분적으로 국민들의 기술 수용력 확대, 근접 소매 경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기인한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Indomarco Prismatama가 소유한 편의점 체인인 인도마렛은 지난해 49억 8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1위를 차지했고, 알파마트는 39억 90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유로모니터의 Dhea Sutanto는 인도마렛의 성공은 경쟁 업체에 비해 더 많은 매장 확보 및 판매 촉진 전략에 기인 한 것 같다고 전하며, "더 많은

# 2019년 아시아 100대 소매 기업

-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Top 100 Retailers in Asia 2019’ 보고서 발표  
- 롯데그룹 8위, 신세계 10위, 쿠팡 57위  
- 인도네시아 : 인도마렛 1위, 알파마트 2위, 마타하리 백화점 (CVC) 3위

Top 100 Companies within Retailing in Asia Pacific			
Global Brand Owner	2018 Rank	2017 acts (US\$ Million)	2018 acts (US\$ Million)
Alibaba Group Holding Ltd	1	196,926	243,519
JD.com Inc	2	142,636	201,047
Seven & I Holdings Co Ltd	3	73,990	77,399
AEON Group	4	65,979	67,965
Amazon.com Inc	5	33,891	40,653
Suning Commerce Group Co Ltd	6	30,348	40,098
Walmart Inc	7	19,726	35,400
Lotte Group	8	26,762	27,413
FamilyMart UNY Holdings Co Ltd	9	25,035	26,471
Shinsegae Co Ltd	10	22,518	25,396
GOME Electrical Appliances Holding Ltd	11	15,976	19,454
Auchan Group SA	12	15,576	16,618
Lawson Inc	13	15,306	16,477
China Resources Holdings Co Ltd	14	15,656	15,871
Vipshop Holdings Ltd	15	12,842	15,854
Rakuten Inc	16	14,837	15,456
Yamada Denki Co Ltd	17	14,341	14,843
Japan Consumers Cooperative Union	18	14,384	14,783
Fast Retailing Co Ltd	19	13,226	14,641
Pinduoduo Inc	20	4,293	13,649

Top 10 Companies within Retailing in Indonesia			
Global Brand Owner	2018 Rank	2017 acts (US\$ Million)	2018 acts (US\$ Million)
Sumber Alfaria Trijaya Tbk PT	1	5,313	5,389
Indoritel Makmur Internasional Tbk PT	2	4,718	4,721
CVC Capital Partners Ltd	3	1,311	1,312
Trans Retail Indonesia PT	4	1,225	1,161
Dairy Farm International Holdings Ltd	5	893	1,001
Alibaba Group Holding Ltd	6	646	911
Erajaya Swasembada Tbk PT	7	677	712
Matahari Putra Prima Tbk PT	8	758	709
Ramayana Lestari Sentosa Tbk PT	9	580	574
Ace Hardware Corp	10	437	488

소비자와 더 많은 매장에 다다갈 수 있다면 자동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할 것입니다. 특히 도달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마렛은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15,633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파마트는 13,991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타하리 백화점 (Matahari Department Store)

은 13억 6천만 달러의 매출로 3 위를 차지했고, Trans Retail Indonesia의 까르푸 (Carrefour)와 트랜스마트 까르푸 (Transmart Carrefour)가 12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5 위는 Hero Supermarket Group, Guardian, Star Mart 및 Giant를 운영하고 있는 Dairy Farm International의 매출액은 9억 3천만 달러였다.

<경제부>

## PT Pertamina, 2019년 Fortune Global 500에서 175위에 등극

-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Pertamina 이름 올리  
- 미국 212개, 중국 119개...한국은 16개 기업



지난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최고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쁘르타미나(Pertamina)가 인도네시아 기업 최초로 2019년 Fortune 500에 이름을 올렸다. 쁘르타미나는 올해 175위를 기록하며 전년도(253위) 대비 78 단계나 상승했다.

쁘르타미나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Fajriyah Usman은 쁘르타미나의 성과는 모든 임직원과 정부, 국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적극 성원해준 결과이

며, 쁘르타미나는 다른 세계적인 회사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2018 년 쁘르타미나는 총 매출 579억 3천만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34.9퍼센트 증가한 규모이다. 순이익은 25억 2천만 달러이며, 총 자산은 647억 달러, 직원 수는 31,569명이다.

한편, 중국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급성장했다. 올해 Fortune Global 500 리스트에 따르면, 212개 기업이 이름을 올린 미국

과 대등하게 중국은 119개의 기업이 리스트에 올랐다. 또한 중국은 상위 10위에 3개 기업이 리스트에 올라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다 보유국가가 되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전년 대비 3단계 내려간 삼성전자(15위)를 비롯하여 SK홀딩스(73위), 현대자동차(94위), 포스코(171위) 등 총 16개 기업이 2019년 Fortune Global 500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 기업 중 가장 큰 상승을 보인 기업은 전년 대비 107단계가 올라간 SK하이닉스이다.<경제부>

소매업체

HERO Group

1972년부터

MATAHARI DEPARTMENT STORE

1982년부터

Ramayana

1983년부터

MAP

Mitra Adiperkasa

1995년부터

매장수

2015년 - 2019년

610 610

142 610

129 610

2,059 2,094

개업 폐업

2015년 - 2019년

284 22

3 24

11 14

(2017-2019년)  
321 339

7 ELEVEN

230 상점

2009-2017년

DISC TARRA

100 상점

1986-2015년

AQUARIUS

4 상점

1986-2013년

상점폐업이유

• 판매액 급감

• 핵심상권에서 밀려나

• 수마트라섬과 칼리만탄섬으로 이전

SUMBER: KATADATA, TIRTO, DETIK, KOMTAN, AQUARIUS MUSIC ONLINE, NASRAN, YOSEPHIA PUSPARISA, DESAARI ANIS L. SETIAWAN, ILLUSTRASI: TIMOTHY ADRY

한인포스트 디자인

현재 백화점과 소매업체가 심각한 경쟁에 시달려 폐업하고 있다.

올해 Hero 그룹 자이언트 6곳이 폐업했다. 경쟁에서 밀려난 곳은 다음과 같다.



##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NUSANTARA NEWS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들 아드하 희생제와 독립기념일

다음 주는 휴일이 끼어 있는 주간입니다. 11일 일요일은 이들 아드하(Adha)라고 해서 무슬림들이 자기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희생제를 드리는 날이고 17일 토요일은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내 곳곳에 희생제로 드릴 소나 염소를 매달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드하(Adha)는 이슬람 교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Ismael)을 데리고 모리아(Moria)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Ismael)은 서자고 이삭(Isak)은 정실 아들이기 다른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이슬람들은 이브라힘(Ibrahi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온산을 눈이 온 것처럼 온통 하얗게 만든 것입니다. 주말을 기해 화산 주변 2km 반경 주민들을 대피시켰지만 주변에 쌓인 화산재를 다 치우고 오는 8월1일부터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은 당분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날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자동차로 정상까지 올라 갈 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텐(Banten)주는 자카르타까지 잠시나마 진동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를 뒤흔든 지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자카르타는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반둥 바랏(Bdg Barat)과 수방(Subang)군 사이의 땅꾸판푸라후(Tangkupan Perahu) 화산, 일명 반둥 화산이 200미터가 넘는 화산재를 뿜어 올렸습니다.

### 지진과 화산

지난 주말 밤 뿔라부안 라투(Pel. Ratu) 남쪽 깊은 바다에서 진도 5.0 규모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반텐(Banten)주 레박(Lebak)과 심지어 자카르타까지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앙지에서 자카르타까지의 거리만 보면 약 160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것도 바다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자카르타까지 그 진동이 전해지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 정치권 농공행상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연합선거대책본부를 둘러싼 농공행상 소문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연정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일하는 인도네시아 연정팀, 즉 KIK을 해산하고 있습니다.

KIK을 둘러싼 소문은 뿌라보워(PRBW) 그린드라(Gerindra)당 총재가 지난 24일 메가와티(Megawati) PDIP 총재를 만나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연정을 하고 있는 나스뎀(Nasdem) 수리아 빨

로(Surya Paloh) 총재가 갑자기 아니스 바스웨단(Anis Baswedan) 자카르타 시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아니스 시장은 그린드라(Gerindra)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모크라트(Demokrat)당의 아구스 하르묵티 유도요노(Agus Harmukti Yudoyono) 당무공동위원장은 조코위 대통령을 만나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도 합니다. 국가수권당으로 해석되는

PAN 당은 이미 선거 직후 조코위 대통령에게 바짝 옆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KIK 고위직 멤버들은 PDIP 당의 승인도 없이 농공행상을 위한 미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지금 연정도 연정이지만 차기 내각 구성을 놓고 치열한 로비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길어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연정체제는 쉽게 깨지게 되고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는 30년 동안 원자력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마주 문두르(Maju Mundur), 즉 오락가락만 계속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인도네시아는 벌써부터 중부자바 제빠라에 1메가와트 급의 원자력 발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제빠라 이

외에도 방카에 600메가와트, 서부 칼리만탄에 100메가와트 1기가 와트 급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지만 누사 뎡가라 바랏(NTB)도 적지로 좁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적지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내진에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외국인 투자 감소세

투자청 BKPM은 2019년 전반기 투자율이 전년도 투자비 74%와 비교해 볼 때 2% 증가하여 94%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자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른 나라경제보다 좀 낫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만 보면 투자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 13.4% 대비 많이 줄어 들어 3%

### 중국, 인도네시아 투자실적 줄어

최근 BKPM이 1분기 투자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실적이 많이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 투자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홍콩(HK)이고 그렇게 급상승하던 중국 투자는 그 다음으

로 홍콩(HK)과 투자순위가 뒤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중국 투자가 주춤하는 것은 자국내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유니콘(Unicorn)회사는 4개지만 모두 싱가포르 회

###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즉 AMM 방콕(BKK)회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퍼시픽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AMM회의 뿐만 아니라 ARI 즉 아세안 지역포럼이나 아세안 플러스(ASEAN Plus) 기구 IORA

즉, 환 인도양국가연합, 그리고 APEC 등 총 28개 국가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에 대해 설득해 나갈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인도-퍼시픽 전략에 좀 수동적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4차 방콕 아세안 회의 이후부터 아주 상반된 외교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캄보디아에 두르고

### 뜨갈 멜라띠 수출

중부자바 뜨갈(Tegal) 농민들이 멜라띠(Melati)라고 하는 꽃을 따 말려서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중동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멜라띠(Melati)라는 것은 아주 작은 잎으로 마치 우리나라 도장나무와 비슷한데 회고 둥근 모양

의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향이 강하기 때문에 손님맞이꽃 목걸이와 결혼식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침 뜨갈(Tegal) 농민들이 멜라띠를 많이 심어 빼갈롱안(Pekalongan)이나 족자, 솔로, 짜레본, 수라바야, 자카르타 등지 나무와 비슷한데 회고 둥근 모양



글. 한상재/칼럼리스트

어쨌든 전세계 원자력 발전은 전체 전기 소요량의 11%나 된다고 합니다.

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를 보면 전기, 통신, 가스, 물, 교통분야, 창고업, 기계 및 금속분야, 광산개발, 부동산 및 공단개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고 합니다. 고젝(GoJek), 토포페디아(Tokopedia), 부까라팍(Buka Lapak), 그리고 트래블로카(Traveloka)까지 모두 싱가포르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순수 인도네시아 자본의 그랩(Grab)이 5번째 유니콘(Unicorn) 기업으로 가세하게 됩니다.

하는 중국 군사기지 이슈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남방 진출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인도-태평양 라인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의 균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는 바이어가 크게 늘어나 재배면적을 더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매 가격도 괜찮은 편인데 kg 당 2만 루피아에서 15만 루피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은 4헥타에 심었을 경우 2억에서 2억 5천 루피아를 벌 수 있다고 하니깐 헥타 당 5천만 루피아는 버는 셈입니다.

## 디지털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인도네시아

- 소프트뱅크 그룹, 그랩(Grab)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
- 인도네시아의 AI, 전기자동차 생태계 개발
-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모색 중

지난 월요일 소프트뱅크 그룹(SoftBank Group)의 손정의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한 후, 인도네시아의 인공지능(AI), 지오맵핑(geo-mapping) 솔루션 개발, 헬스케어 및 전기자동차 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개발을 위해 그랩(Grab)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과 손정의 회장은 회담에서 기술 분야 투자를 통해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등 향후 몇 년 안에 ‘동남아 최대의 디지털 경제대국 인도네시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투자는 그랩(Grab)의 제2 분사를 자카르타에 설립하여 향후 5년 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소프트뱅크는 이미 올해 3월에 14억6천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이다.

그랩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8년 경제 기여도는 35억 달러라고 밝히며, “그랩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랩은 자카르타에 제2의 분사를 설립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주변 경제 신흥국가들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잘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랩 인도네시아 사장인 리즈끼 크라마디브라타(Ridzki Kramadibrata)가 말했다.

그랩의 인도네시아 본사는 자카르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센터와 동남아 최대 음식 배달 서비스인 ‘그랩푸드(GrabFood)’ 사업을 위한 그랩의 제2분사가 될 전망이다. 그랩 제2분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랩-쿠도(Grab-Kudo)’ 에이전트 같은 소규모 기업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그랩은 동남아의 다른 신흥 경제국에도 관련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랩 측은 “두 번째 분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천 명의 고용 기

회를 창출하고, 현지 주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랩은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이자, 최대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와 관련 손정의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기술 분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랩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랩 인도네시아 사장인 리즈끼 크라마디브라타(Ridzki Kramadibrata)는 이번 소프트뱅크와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개발은 그랩의 여러 투자자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

## 8가지 전기차 인센티브

재무부는 전기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8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에 관한 법령을 발급한다.

**관세 인센티브**  
정부는 완전조립생산(CKD)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에게 특정기간에 관세 인센티브를 준다.

### Tax Holiday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와 협력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에게 소득세(PPh) 면제 인센티브를 준다.

### 세금공제 (Tax Allowance)

전기차 부품과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게 세금공제 인센티브를 준다.

### 사치품판매세 (PPnBM)

전기차는 사치품 판매세가 면제되지만 기타 차량은 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사치품 판매세를 부과한다.

### 투자

기계, 재료 수입을 하는 회사에게 수입세 인센티브를 준다.

### 수입세 정부 부담

BM DTP(Bea Masuk Ditanggung Pemerintah) 2019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원자재 등 수입세를 정부가 부담한다.

### 기타 인센티브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전기충전과 전기충전소(stasiun pengisian kendaraan listrik umum - SPKLU) 공사

### 수출 인센티브

수출목적으로 물품수입과 납부는 용이하게



금주의 詩


미 소

막히는 서울 춘천고속도로  
이쯤이야 하며  
만성 교통체증 Pantura 고속도로가 생각이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서울은 나뭇잎의 색이 가장 진한 7월인데  
야자나무 진한 녹색이 눈에 익어  
산이며 가로수며 온통 연두색으로 보여  
혼자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고요한 가평의 아침 기온은 19도  
얼마 만에 이렇게 시원한 거지?  
연중 무더운 찌까랑에서 해방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

분명 나는 변했다  
내 안에 있는 그 덥고 눈부신 적도의 나라  
당연했던 것들의 생소함이 특별하게 느껴져  
혼자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한화경/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 시작노트 〉

인니에서 생활하시다 가끔 한국에 돌아오시면 어떻게 느끼시는  
지요?

1년만에 첫 귀국한 저는 눈부신 인니가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니에서 이방인처럼 느끼며 살았지만 1년 세월 동안 정  
이 좀 들었나 봅니다. 생활 속에서 사소한 내용들이지만 인니를 떠올리  
며 혼자 입가에 미소 짓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니가 마음속에 자리잡고 계신 분들과 공감해 보고싶어서 표현해 보았습  
니다. 인니 덕분에 당연했던 일들도 특별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소중한 체  
험을 하고 있습니다.

CERAGEM



### 세라젼 척추온열마사지로 달라지는 내일!

세계에서 매일 250만여 명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라젼은 세계 70여 개국, 2,500여 개의 대리점을 운영중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매일 250만여 명의 고객분들께서 세라젼 척추온열의료기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젼과 함께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 20년 역사 의료가기 전문기업 세라젼
- 인체의 중심 척추관리를 위한 척추온열의료가기 개발(1998년)
- 체험마케팅을 통한 세계 70여개국 네트워크 구축
- 척추온열의료가기 글로벌 누적판매 250만여대 업계 1위

상담문의 0811 9593 111





Bridge Language Center  
Pusat Jembatan Bahasa  
Jl. Ganesha Blvd, RT.005/RW.008, Desa Pasirranji, Kecamatan Cikarang Pusat,  
Kabupaten Bekasi, Provinsi Jawa Barat, 17530  
Tel : 62-821-2213-2733 / Webpage : blick-eduplex.net



찌까랑 메인캠퍼스

(1) 회화, 문법 집중반

- 기간: 2019년 7월 22일-8월 23일(5주-75시간)
- 시간: (월-금) 9:00am -12:15pm
- Rp. 5,500,000

(2) BIPA 초급, 중급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법)

- 기간: 2019년 9월 2일-12월 20일(16주-240시간)
- 시간: (월-금) 9:00am -12:15pm
- Rp. 16,000,000

(3) 개인과의 문의 가능

BIPa PROMOTION!

2019년 가을학기부터 수업료 인상과 더불어 색다른 변화로  
BLC BIPA 인도네시아수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첫째: Early Bird 혜택 (수업료의 7% 할인혜택)- 6월달 한달만

둘째: invite friends! (수업료의 5% 할인혜택)

셋째: 연달아 비과 수강시 할인 혜택 (수업료의 5% 할인혜택)

넷째: 재수강 할인 (수업료의 30% 할인혜택)

BLC 자카르타



자카르타 비과 졸업식



자카르타, 찌까랑 필드트립


신청문의

+62-812-304-1294

자카르타 캠퍼스 담당자

+62-813-8237-7062

BLC 전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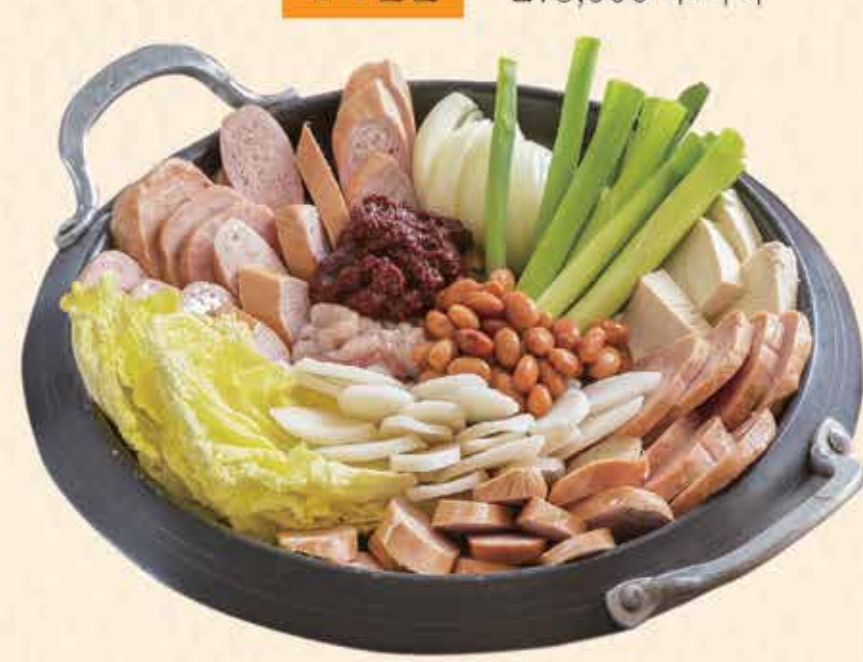


정기와  
Chung Gi Wa

햄, 소시지, 신선한 야채와 육수,  
매콤한 다데기로 한층 칼칼하고 얼큰한

# 부대찌개

2~3인분 275,000 루피아



라면사리까지 더해져 한끼 식사로 손색없는  
정기와 부대찌개! 지금 바로 식당으로 오세요~.

(\*) 가격은 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정기와 상품권 출시!

고마운 마음을 정기와 상품권으로 전해보세요.

상품권 종류

50만 루피아, 100만 루피아

상품권 특징

본 상품권은 정기와, 정기와 테라스,  
정기와정육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